

MARKET GRAMMAR LOG • 누적 문서

시장 문법 노트

마감시황을 볼 때마다 시장을 읽는 데 쓸 수 있는 매크로 원칙·산업 특성·기업 특성·시장 심리를 뽑아 쌓는 기록.

항목 56건

최근 갱신 2026-09-08

출처: 국장 마감시황 (09-02, 09-03, 09-07, 09-08)

19

매크로 원칙

17

산업 특성

11

기업 특성

09

시장 심리

■ 매크로 원칙

■ 산업 특성

■ 기업 특성

■ 시장 심리

M-01

지수는 금리를 따라, 재료는 개별 종목을 따라 움직인다

금리 이벤트가 지수 전체의 방향을 누르는 동안에도, 강한 개별 재료(예: AI 모델 공개)가 있으면 특정 섹터·종목은 지수와 반대로 급등할 수 있다. 두 힘이 부딪히면 결국 재료의 화력이 지수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생긴다.

오늘 사례 — 미 고용 호조로 9월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풀리기 쉬워 주식에 우호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음) 확률이 59%로 낮아졌음에도(지수엔 부담 요인), GPT-6 공개로 SK하이닉스 ADR +8%·마이크론 +6% 급등 → 결국 반도체가 코스피 전체를 4.6%대까지 끌어올림.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M-02

야간선물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정규장 마감 후~다음 개장 전 사이에 거래되는 선물.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규장이 쉴 때 미리 방향성을 거는 창구)은 다음 개장 강도의 선행 신호
정규장이 쉬는 날에도 야간선물은 움직인다. 급등·급락 폭이 크면 다음 날 개장 갭의 방향과 세기를 미리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 쓸 수 있다.

오늘 사례 — 미국 노동절 휴장에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3.93% 급등 → 실제 개장도 4% 갭 업으로 시작.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M-03

지수와 변동성지수 (V-KOSPI: 코스피200 옵션 가격으로 추정된 향후 변동성 지표. 통상 지수가 급등락할 때 같이 뛰는 '공포지수' 성격)가 함께 오르면 쏠림 랠리 신호

지수 급등에도 변동성지수까지 같이 오른다면, 상승이 소수 종목에 몰려 있을 뿐 시장 내부는 고르게 튼튼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오늘 사례 — 코스피 +4.61%인데 V-코스피도 +8% 가까이 급등. 외국인 순매수의 86%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에 쏠려 있었음.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M-04

상승 확산성 제한 + 변동성 상승 + 코스닥 → 코스피 자금이동 = 장세 판별 체크리스트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특정 국면(연초 같은 대형주 쏠림 상승장)과 성격이 닮아 있다는 뜻. 오늘 지수가 좋아 보여도 장세의 '질'을 따로 점검하는 습관에 쓸 수 있다.

오늘 사례 — 코스피 대형주 쏠림 + V코스피 상승 +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금 이동이 하루 안에 동시에 관측됨.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M-05

환율 방향에 따라 수혜·피해 섹터가 갈린다

원화강세(환율 하락)는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 여건을 좋게 만들지만, 동시에 달러 매출 비중이 큰 수출주에는 원화 환산 실적 눈높이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환율은 한쪽에만 좋은 변수가 아니다.

오늘 사례 — 원/달러가 일주일 만에 1368원 → 1340원대로 하락. 외국인 매수엔 우호적이었지만 삼양식품·아모레퍼시픽 등 수출 비중 큰 소비재는 약세.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M-06

환헤지 (국민연금 등 기관이 해외자산을 살 때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려고 동시에 달러를 매도하는 거래. 이걸 멈추면 시장에 나오는 달러 공급이 줄어듦) 중단은 원화강세 압력을 낮추는 변수

연기금 등이 해외자산 매입 시 환헤지를 멈추면 시장에 풀리던 달러 매도 물량이 줄어 원화강세 속도가 완만해진다. 연기금의 환헤지 정책 변화는 환율을 예측할 때 추적할 가치가 있는 변수.

오늘 사례 —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장중 1330원대까지 밀렸던 환율이 1340원대로 낙폭을 되돌림.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M-07

주가 급등에도 금리가 안 움직이면, 채권시장은 아직 경계를 안 풀었다는 뜻

주식이 크게 오른 날 국고채 금리가 거의 그대로라면, 채권 쪽은 인플레이션·통화정책 이벤트에 대한 경계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주식-채권 반응의 괴리를 함께 보는 습관.

오늘 사례 — 코스피 +4.6%인 날 3년물 3.88%대, 10년물 4.36% 안팎으로 거의 보합 — 미 고용 호조·유가 상승·다음 주 FOMC 경계가 남아있다는 설명과 함께.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M-08

개인의 연속 대량 매도는 수급 주도권 교체의 신호일 수 있다

개인이 이틀 연속으로 큰 폭 순매도하면, 그 물량을 외국인·기관이 받아내며 시장의 수급 주도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개인 매도 강도의 변화로 주도권 교체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

오늘 사례 — 금요일 개인 3.7조 순매도에 이어 오늘 6.8조 순매도, 이틀 합산 10조 원 넘는 물량을 외국인·기관이 받아냄.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M-09

유가 급등은 '기대인플레 → 금리 →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순서대로 자극한다

유가가 오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기대인플레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먼 미래의 이익을 미리 당겨오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먼저 깎인다. 지정학 이벤트 하나가 이 경로를 타고 하루 안에 다 지나갈 수 있다.

오늘 사례 — 사우디 에너지 시설 피격으로 WTI 92달러대 → 94.1달러, 브렌트유 장중 97달러 돌파 → 미 10년물 금리 4.8% 근접 → 오후 들어 반도체·성장주가 오전 상승분을 반납.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M-10

매물대 (특정 가격대에서 실제로 거래되어 쌓인 물량. 그 가격대에 산 사람이 많을수록, 주가가 그 근처로 돌아왔을 때 '본전 탈출' 매도가 물리기 쉬움)는 **지수 상단의 저항 구간이 된다**

특정 가격대에 개인 매수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지수가 그 구간에 접근할 때마다 본전을 찾으려는 매도가 몰려 상승을 막는 저항으로 작용하기 쉽다.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 매물이 더 큰 구간이면 그만큼 돌파가 어려워진다.

오늘 사례 — 올해 고점 이후 8월 말까지 개인이 코스피 7500~8600 구간에 약 36조원을 매수해 둔 상태 — 지수가 7000선 위로 갈수록 이 매물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M-11

외국인·기관이 연속 순매수해도 지수는 내릴 수 있다

수급 주체의 순매수 방향과 지수의 방향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다. 매물대 저항이나 외부 악재(유가·금리)의 힘이 더 크면, 기관·외국인이 사들이는 동안에도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릴 수 있다. 순매수 금액만 보고 지수 방향을 예단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사례 — 외국인·기관이 나흘 연속 순매수했음에도 코스피는 장중 7171.52 고점에서 6954.52로 마감하며 0.58% 하락.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M-12

환율은 그날의 위험선호·회피 심리를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

환율이 하루 종일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오전엔 위험선호(원화강세)로, 오후엔 유가발 지정학 리스크로 안전자산(달러) 수요가 커지면 같은 날 안에서도 원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그날 주식이 움직인 방향과 환율의 방향이 같이 가는지를 보면 그날의 심리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 사례 — 원/달러가 오전 1336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사우디 피격 이후 오후 1345.6원으로 마감 (전일比 +5.1원) — 주식과 같은 방향(오전 강세·오후 약세)으로 움직임.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M-13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후로는 수급이 흔들리기 쉽다

만기일에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베이스스)를 이용해 들고 있던 프로그램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청산되는 경우가 많아, 장 막판 수급이 평소보다 불안정해질 수 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그 자체를 변동성 요인으로 미리 감안해야 한다.

오늘 사례 — 내일(9/9)이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는 점이 오늘 장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됨.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M-14

디레버리징 국면에서는 자사주 매입 같은 상시 방어 수단도 한도를 넘는 매도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자사주 매입은 지수 하단을 지켜주는 꾸준한 매수 주체지만,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집행되는 유한한 물량이다. 외국인·기관 매도 규모가 이 한도를 넘어서면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지수를 방어할 수 없다.

오늘 사례 — 9/2 외국인·기관 합산 약 4조원 순매도 앞에서, 비슷한 규모(약 2조원대)의 자사주 매입 추정 물량으로도 코스피가 3.99% 급락하는 것을 막지 못함.

국장 마감시황 · 2026-09-02

M-15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특정 종목이 아니라 지수 편입 종목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사고파는 프로그램 매매의 한 방식. 개별 재료가 아니라 지수 전체에 대한 베팅일 때 나옴)는 대형주 전반의 동반 하락을 만든다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특정 종목의 재료 때문이 아니라 한국 주식 익스포저 자체를 줄이는 매도로 볼 수 있다. 이런 매도는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을 동시에 끌어내린다.

오늘 사례 — 9/2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1조4700억원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이 전부 하락.

국장 마감시황 · 2026-09-02

M-16

몇 년 뒤 이익을 미리 당겨 평가받는 업종이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하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몇 년 뒤의 수주·이익 전망으로 주가가 매겨지는 업종(조선·전력기기·원전 등)은, 금리가 오르면 그 먼 미래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폭이 커져 특히 크게 흔들린다. 금리 이벤트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업종군.

오늘 사례 — 9/2 미 10년물 금리 4.8% 근접 국면에서 HD현대중공업 -6.84%, 두산에너지 -5.9%, HD현대일렉트릭 -7.54% 등 조선·전력기기·원전이 동반 급락.

국장 마감시황 · 2026-09-02

M-17

같은 유가 상승도 정유업체에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한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가 이미 사둔 원유 재고의 장부가치가 올라 평가이익이 생기는 반면, 앞으로 사들일 원유 가격도 함께 오르고 경기 둔화 시 석유제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붙는다. 어느 쪽 힘이 더 큰지에 따라 그날의 주가 반응이 갈린다.

오늘 사례 — 9/2 WTI가 90달러를 넘겼는데도 S-Oil -0.53%, SK이노베이션 -2.81%, GS -3.77% — 악재 쪽 해석이 더 크게 반영됨.

국장 마감시황 · 2026-09-02

M-18

월말에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네고) 물량이 몰려 원화 강세를 지탱할 수 있다

월말이 가까워지면 수출업체들이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이 물량이 크면, 외국인이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 원화 매도 압력이 커지는 날에도 환율이 오히려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사례 — 9/2 외국인이 주식을 2조원 가까이 팔았음에도 원/달러가 1.7원 내린 1368.7원으로 마감 — 월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외국인 매도 물량보다 컸던 것으로 설명됨.

국장 마감시황 · 2026-09-02

M-19

국내 기관 매도는 주체(증권사 프랍, 연기금 등)를 구분해서 봐야 진짜 트리거가 보인다

'기관 매도'라는 한 마디로 뭉뚱그리기보다, 그 안에서 증권사 자기자본(금융투자) 매도인지 연기금 매도인지를 구분하면 장중 급락이 실제로 어디서 촉발됐는지를 더 정확히 짚을 수 있다.

오늘 사례 — 9/3 오후 2시경 금융투자(증권사 프랍)와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순식간에 200포인트 넘게 급락(장중 6430선).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I-01

반도체 재고일수는 업황 강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완제품 재고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재고일수의 변화 자체가 업황 사이클을 판단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오늘 사례 —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재고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대형 주 매수의 핵심 근거로 작용.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I-02

HBM (High Bandwidth Memory.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역폭을 높인 고성능 메모리로, AI 서버·GPU에 주로 쓰임) 증설과 범용 D램 캐파는 트레이드오프 관계

같은 생산라인 안에서 HBM 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범용 D램에 쓸 캐파가 줄어든다. 한쪽 수요가 급증하면 다른 한쪽의 중장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구조.

오늘 사례 — HBM 생산 확대가 범용 D램 캐파 축소로 이어져, 2027년 D램·낸드 모두 공급 부족 가능성이 매수 근거로 언급됨.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I-03

공급부족 전망 → 공장 투자 → 장비 발주, 밸류체인이 순서대로 반응한다

공급이 모자랄 것이란 전망이 서면 신규 공장 투자 기대가 먼저 오르고, 그 공장을 채울 장비 발주 기대가 뒤따른다. 국내 소부장 업체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수혜를 받는 구조.

오늘 사례 — 삼성전자 평택 P4·P5 신규 공장 투자 가속 기대가 소부장 업체들의 급등(DB하 이텍 12%대 등)으로 이어짐.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I-04

HBM은 적층 구조라 후공정 장비 수요가 특히 크다

후공정 (완성된 칩을 자르고 싣고 검사·포장하는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단계. HBM처럼 여러 층을 싣는 제품일수록 이 단계의 장비 수요가 커짐)은 칩을 싣고 검사하는 단계인데, HBM은 여러 층을 싣는 제품 특성상 이 단계의 장비가 유독 많이 필요하다. 후공정 발주 재개는 검사·패키징 장비 업체에 직접적인 수혜로 연결된다.

오늘 사례 — HBM 후공정 장비 발주 재개 기대가 검사·패키징 관련 소부장 업체들의 급등에 함께 작용.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I-05

대형 변압기는 발주~납품까지 2~3년 걸리는 구조적 리드타임 산업

전력기기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도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산업이다. 이런 긴 리드타임은 수요 급증 국면에서 공급 병목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 밸류에이션 논리로 쓰이기 쉽다.

오늘 사례 —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겹치며 가온전선·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 등이 6~8%대 급등.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I-06

발전 프로젝트 하나가 밸류체인 전체를 동시에 움직인다

가스복합화력 같은 발전 프로젝트는 가스터빈·증기터빈·열회수보일러 등 여러 하위 업종이 한 사업 안에 함께 들어있다. 해외 발전 프로젝트 확정 같은 단일 이벤트가 여러 종목·업종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오늘 사례 —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사업 확정 + 미국 원전 8기 추진 보도가 겹치며 두산에너지·에너빌리티·두산퓨얼셀·산일전기 등이 10~22%대 급등.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I-07

확인 안 된 상장·투자유치 루머는 공시 부인 한 번에 열기가 식는다

신사업 관련주는 상장 검토설 같은 루머성 호재에 먼저 반응하지만, 회사 측이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로 부인하면 열기가 빠르게 빠져나간다. 루머 기반 상승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항상 감안해야 한다.

오늘 사례 — LG전자 자회사 베어로보틱스의 나스닥 상장 검토설이 로봇 섹터를 끌어올렸다가, 회사 공시로 부인되며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로 빠져나감.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I-08

전환사채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CB). 발행하면 나중에 신주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음) 발행 검토는 기존 주주 희석 우려로 악재

같은 '자금조달' 뉴스라도 방식에 따라 주가 반응이 다르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로 통상 악재 재료가 된다.

오늘 사례 — LNF가 30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5.61% 하락.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I-09

발전 밸류체인은 설비 → 설계 → 시공 순서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간다

하나의 발전 프로젝트 재료라도 하루 안에 다 반영되지 않는다. 설비를 만드는 회사, 설계하는 회사, 짓는 회사가 각각 다르다 보니, 재료가 나온 날엔 설비주가, 그다음 날엔 설계·시공주가 순서대로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오늘 사례 — 어제(9/7)는 원전·가스터빈 등 설비 쪽이 급등했다면, 오늘(9/8)은 한전기술(+16.6%)·대우건설(+8.47%)·현대건설(+3.55%) 등 설계·시공 쪽이 급등.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I-10

정책 방향이 뚜렷한 업종은 지수 조정에도 상승을 지키는 경향이 있다

지수 전체가 오후에 밀리는 국면에서도, 정부 정책 참여 기대처럼 근거가 뚜렷한 업종은 상승을 지키는 반면, 전날 이미 크게 오른 개별 종목은 같은 업종 안에서도 차익 실현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차이가 난다.

오늘 사례 — 지수가 오후 내내 하락했음에도 원전·건설 업종은 상승을 지킴. 다만 전날 이미 급등했던 두산에너지는 장중 +6%대에서 종가 +1.82%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듦.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I-11

같은 재료도 날마다 대형주와 장비주 중 어느 쪽에서 더 강하게 반영될지 달라진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같은 내러티브라도, 어떤 날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이끌고, 어떤 날은 장비·소부장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반응한다. 업종 전체가 함께 오르는 날과 개별 종목 수급으로 갈리는 날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오늘 사례 —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오전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주성엔지니어링(+3.95%)·DB하이텍(+2.58%)·한미반도체(+1.66%)는 장비 투자·특화 파운드리 기대로 상승 유지. (추가 사례 9/2: 삼성전자 -4.02%·SK하이닉스 -4.73%로 급락하는 와중에도 D야 +14.82%·아스플로 +12.62%·이수페타시스 +0.82%(외국인 순매수 1위) 등 장비·부품주는 실적 성장 기대로 급등)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I-12

부품 공급망은 완제품 업체의 생산 일정 뉴스에 즉각 반응한다

완제품(스마트폰 등) 제조사의 신제품 생산 일정이 지연된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 종목들이 실제 매출이 확인되기도 전에 먼저 하락한다. 공급망 종목은 완제품 업체의 이벤트·보도 일정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다.

오늘 사례 — 애플 폴더블 아이폰 초기 생산 확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хин지 등 성능 검증 이슈)에 삼성전기 -5.78%, LG이노텍 -7%, 파인텍 -12.85% 급락.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I-13

정부 정책 사업의 수행 기관 선정은 상한가급 재료가 될 수 있다

막연한 산업 성장 기대보다, 특정 기업이 정부·공공 정책 사업의 실제 수행 기관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훨씬 강한 재료가 된다. 산업 내러티브가 개별 종목을 확정 이벤트로 구체화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

오늘 사례 — 빛과전자가 광통신 부품 상용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상한가 — "AI 인프라 병목이 연산에서 연결로 이동한다"는 내러티브가 실제 정책 사업으로 확인된 사례.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I-14

조선업은 이미 몇 년치 수주 잔고가 쌓여 있어, 새 수주는 그 뒤에 순차적으로 붙는 물량이다

조선사는 보통 몇 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수주한 배도 실제 인도는 몇 년 뒤로 잡힌다. 그래서 조선업 뉴스를 볼 때는 '수주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게 기존 잔고 위에 계속 쌓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 사례 — 9/3 한화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1조 5527억원)을 수주, 인도는 2029년 하반기로 예정.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I-15

수급이 얇은 부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대형 고객사(원청)의 주가 흐름에 동반될 수 있다

부품주는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작아 수급이 얇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작 그 부품을 쓰는 대형 고객사(반도체 대형주 등)의 투자심리가 흔들리면, 부품주 자체의 실적 전망은 그대로인데도 동반해서 팔릴 수 있다.

오늘 사례 — 9/3 대형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오전 상승분을 반납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AI 서버 기관 수주 기대가 살아있는 이수페타시스·심텍·두산 등 부품주도 함께 하락.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I-16

같은 전력 섹터라도 설비 운영 주체와 그 설비를 납품하는 벤더는 다른 재료에 반응한다

전력 섹터 안에서도 전력망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한전 등)와 그 설비(변압기 등)를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는 서로 다른 이벤트에 반응하기 때문에, 같은 섹터 뉴스에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전력 섹터가 올랐다'는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어느 쪽 회사 얘기인지 구분해야 한다.

오늘 사례 — 9/3 한국전력은 반도체 회사들과의 전기요금 선수령 제안 소식에 +3.84% 오른 반면, 전력기기(HD현대일렉트릭 -0.7%, 효성중공업 -1.45%, 메르스일렉트릭 -1.84%)는 차익 실현으로 하락.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발전·전력망 계약에 '선수금' 구조가 붙으면 운영사와 고객사 모두에 우호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전기요금 등을 미리 받는 선수금 구조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현금이 먼저 들어와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자원(전력)을 미리 확보해두는 효과가 있다. 양쪽 모두에게 재료가 되는 특이한 계약 구조로 봐야 한다.

오늘 사례 — 9/3 한국전력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받는 방안을 제안.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C-01 **지수 영향력 큰 대형주의 급등은 다음 날 가격 부담으로 남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지수 비중이 큰 종목이 하루 5~8%대 급등하면, 다음 날 바로 추가 매수가 이어지기엔 가격 부담이 크다. 소수 대형주 쏠림 랠리일수록 다음 날 지속가능성을 따로 점검해야 한다.

오늘 사례 — 삼성전자 +5.68%, SK하이닉스 +8.26% 급등 후, 7000선 안착을 위해서는 두 종목의 후속 매수가 필요하지만 가격 부담이 있다는 평가.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C-02 **외국인 수급은 소수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외국인 순매수 총액이 커도 실제로는 한두 종목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다. 헤드라인 순매수 금액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특정 종목 집중도를 항상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 사례 — 외국인 순매수 전체의 86%(2조2500억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에 집중.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C-03 **수출 비중 큰 소비재는 원화강세 국면에서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다**

같은 매출이라도 환율이 내리면 원화로 환산한 숫자가 줄어든다. 식음료·화장품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소비재 기업은 원화강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쉽다.

오늘 사례 — 원화강세 흐름 속에 삼양식품 -6.14%, 아모레퍼시픽 -2.54%.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C-04 **전날 이미 급등한 종목은 지수가 흔들리면 차익 실현 1순위가 된다**

같은 업종·같은 재료라도 전날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은 지수가 조정받을 때 상승폭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납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상승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오늘 사례 — 전날 급등했던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오늘 장중 +6%대까지 갔다가 종가 +1.82%로 상승폭을 크게 줄임.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C-05

거대한 성장 내러티브만으로는 개별 종목의 수급 부담을 못 막는다

AI·성장 기대 같은 큰 그림의 내러티브가 살아있어도, 개별 종목 차원의 차익 실현이나 변동성 매도 수급이 겹치면 주가는 그 내러티브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종목을 볼 때는 업종 전체의 스토리와 그 종목 개별 수급을 따로 점검해야 한다.

오늘 사례 — AI 성장 기대가 여전한데도 알테오젠 -3.15%, 로보티즈 -5.8%, 레인보우로보틱스 -3.35% — 기관의 코스닥 매도와 차익 실현이 겹치며 하락.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C-06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참여 기대'만으로도 관련주는 급등할 수 있다

투자 방식과 참여 조건이 아직 협의 중이라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참여 가능성 자체에 대한 기대만으로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실제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되돌림 리스크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오늘 사례 — 미국 원전·가스복합발전 설계·시공 참여가 아직 협의 단계임에도 한전기술 +16.6%, 대우건설 +8.47% 급등.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C-07

판매 급감이 파업 같은 일회성 요인이면, 정상화 전망만 확인돼도 하루 만에 낙폭을 되돌릴 수 있다

실적 악화의 원인이 구조적 수요 둔화가 아니라 파업 등 일시적 사건이라면, 그 사건이 해소되고 정상화 전망이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빠르게 재평가한다. 급락한 날의 원인이 '일회성'인지부터 먼저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오늘 사례 — 9/2 현대차·기아 8월 판매 급감(파업 여파, 국내판매 -41%)으로 각각 -5.62%~-5.18% 급락 → 9/3 노사 임금협상 타결로 생산 정상화 전망이 확인되자 외국인 저가 매수 유입되며 각각 +1.46%~+2.42% 반등.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C-08

오래 기다린 대형 계약이 실제 발표되면 '뉴스에 팔아라' 식으로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시장이 미리 기대하고 있던 이벤트는, 그 기대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 발표가 나오는 순간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오늘 사례 — 9/2 알테오젠이 노바티스와 최대 4.4조원 규모 계약을 발표했음에도, 발표를 기다리며 미리 매수했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0.83%.

국장 마감시황 · 2026-09-02

C-09

지수가 크게 급락하는 날에는 개별 종목의 진짜 호재도 수급에 묻혀버릴 수 있다

그 자체로는 분명한 호재인 대형 공급계약이라도, 시장 전체가 강한 매도 압력에 놓인 날에는 개별 종목 재료가 힘을 못 쓰고 지수 방향에 함께 끌려갈 수 있다. 호재가 무시된 것인지, 그저 그날의 수급에 묻힌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오늘 사례 — 9/2 삼성전기가 미국 AI 서버용 커패시터 공급 계약(1조7200억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에도, 지수 급락(-3.99%)에 함께 밀려 -2.1%.

국장 마감시황 · 2026-09-02

C-10

같은 업종 안에서의 지분 재배치는 종목 간 매력도 평가가 같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한 투자자가 같은 업종 안에서 한 종목의 지분은 줄이고 다른 종목의 지분은 늘렸다면, 그 업종 자체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게 아니라 종목별 매력도(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한 평가가 같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 사례 — 9/3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털그룹이 KB금융·하나금융 지분은 줄이면서 신한지주 지분을 5.02%까지 늘림 — 주주환원 정책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는 해석.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C-11

한 회사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는 같은 업종 전체의 재평가로 번질 수 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인 업종에서 한 회사가 해외 M&A·진출에 성공하면, '우리 업종도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업종 전체로 확산되며 동반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 사례 — 9/3 삼성화재가 영국 특수보험사 케노피우스 지분 인수를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삼성화재뿐 아니라 DB손해보험(+6.33%)·KB금융(+5.2%) 등 보험·금융업종 전반이 강세.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P-01 헤드라인 수익률과 시장 내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지수가 크게 오른 날에도 변동성지수가 함께 오른다면,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과 달리 시장 내부는 불안정하다는 신호다. 지수만 보고 "장이 좋다"고 단정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오늘 사례 — 코스피 +4.61%인 날 V-코스피도 함께 급등 — 상승이 폭넓지 않고 소수 종목에 쏠려 있었다는 방증.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P-02 코스닥 → 코스피 자금이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표현

코스닥에서 자금이 빠지고 코스피 대형주로 옮겨가는 흐름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산으로 쏠리는 심리를 반영한다. 장세 후반부의 리스크오프 신호로 참고할 수 있다.

오늘 사례 — 코스닥에서 외국인 675억·기관 1312억 순매도, 코스피는 외국인·기관 합산 5조 원 넘게 순매수.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P-03 오전 테마의 화력이 오후 대형주로 흡수되는 순환매 심리

장 초반 강했던 개별 테마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고, 그 자금이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하루 안에서도 재료의 화력이 다른 재료로 흡수되는 순환매 심리를 보여준다.

오늘 사례 — 장 초반 강세였던 로봇 관련주가 오후 들어 코스피 대형주로 자금이 쏠리며 상승폭을 줄임.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P-04

한쪽으로 쏠린 흐름 뒤에는 항상 반대매매 심리가 잠재한다

환율이든 주가든 한 방향으로 급하게 쏠리면, 그 레벨을 저가·고가로 인식한 반대매매 수요가 유입되며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급락·급등의 끝자락일수록 되돌림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둘 것.

오늘 사례 — 원/달러가 장중 1330원대까지 밀렸다가, 저가매수성 달러 수요가 들어오며 1340원대로 낙폭을 되돌림.

국장 마감시황 · 2026-09-07

P-05

장중 고점을 찍고 오후에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것은 저항과 악재가 겹칠 때 나온다

지수가 하루 안에 크게 올랐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롤러코스터 흐름은, 위쪽에 대기 매물(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악재가 겹칠 때 잘 나타난다. 이런 날은 종가만 보면 '작은 조정'처럼 보여도 장중 변동성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사례 — 코스피가 오전 7171.52까지 올랐다가 오후에 전량 반납, 종가는 6954.52(-0.58%)로 마감 — 숫자만 보면 작은 조정이지만 장중 진폭은 훨씬 컸음.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P-06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지면 자산별 반응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

지정학적 불안은 통상 안전자산(금 등)에 호재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금리·달러 상승을 동반하면 그 힘이 서로 상쇄되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재료는 이 자산에 무조건 호재'라는 단순 공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오늘 사례 — 사우디 피격이라는 지정학 리스크에도 금은 온스당 4440달러 안팎에서 오히려 후퇴 — 지정학 불안은 호재지만 유가발 금리·달러 상승이 악재로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

국장 마감시황 · 2026-09-08

P-07

낙폭이 시가총액 상위 전반으로 고르게 퍼지면 디레버리징 국면일 가능성이 크다

특정 재료 없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순서대로 골고루 빠진다면, 개별 이슈보다는 포지션 자체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하락의 '폭'보다 하락의 '넓이'와 '순서'를 보면 이런 국면을 더 잘 알아챌 수 있다.

오늘 사례 — 9/2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이 전부 하락, 외국인·기관 모두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림.

국장 마감시황 · 2026-09-02

P-08

전일 급락 후 반등이 업황 개선 신호인지 단순 저가매수인지 구분해야 한다

크게 빠진 다음 날의 반등이 항상 업황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다. 소재가격·수요 전망 등 펀더멘털에 실제 변화가 없는데도, 전날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저가매수(기술적 반등)가 들어올 수 있다. 반등의 '이유'를 확인하지 않으면 추세 전환으로 착각하기 쉽다.

오늘 사례 — 9/3 LG화학·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화학이 5~7%대 반등했지만, 소재 가격이나 수요 불확실성이 풀린 것은 없고 전날(9/2) 급락에 대한 기관의 저가매수로 설명됨.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P-09

지수를 지키기 위한 순환매는 대형주 내부에서만 일어나고 코스닥까지 못 미칠 수 있다

지수가 방어되는 날이라도, 그 방어가 대형주 사이의 순환매(한 업종은 팔고 다른 업종을 사는 방식)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 온기가 코스닥까지 퍼지지 않을 수 있다. 코스피 순환매와 코스닥 수급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오늘 사례 — 9/3 코스피는 반도체·바이오를 팔고 금융·조선·2차전지·자동차를 사는 순환매로 지수를 방어했지만, 코스닥은 그 흐름에서 소외되며 800선까지 밀림.

국장 마감시황 · 2026-09-03

이 문서는 마감시황을 볼 때마다 같은 4개 카테고리(매크로 원칙 · 산업 특성 · 기업 특성 · 시장 심리)에 항목을 이어
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누적됩니다. 다음 마감시황 업로드 시 이어서 추가.